

문화유산 활용 역사문화 콘텐츠 풍성

전주시, 경기전·전라감영 일원서 11월까지 수문장 교대의식·왕과의 산책 등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경기전과 전라감영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과 전라감영 일원에서 역사문화 체험과 공연, 해설, 의례 재현 등을 아우르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과 관광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왕과의 산책 △수문장 교대의식 △전라관찰사의 탄생 △전라감영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주 대표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를 선보인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기전과 전라감영의 역사적 가치와 공간적 특성을 살린 주·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보다 풍성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전에서는 조선왕조와 전주사교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교육·해설, 의례 재현, 공연, 야간 탐방이 결합된 역사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한지를 품은 전주사교 이야기'는 전주한지와 기록문화, 전주사교의 역사적 의미를 교육·해설 형식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지 인형을 활용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교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시는 이달부터는 운영일을 확대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전 대표 프로그램인 '수문장 교대의식'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문장의 교대 의식과 순라행렬, 전통 국악공연이 어우러져 한옥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역사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에는 조선왕조실록의 보존 과정을 재현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가 운영된다. 시는 사관 행렬과 의례 재현,



전주시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전 대표 프로그램인 '수문장 교대의식'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교의 기록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시에 야간 프로그램도 더욱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는 경기전의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빛 경관 연출과 퓨전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별빛누빔'이 운영되고, 매주 토요일에는 야간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경기전 곳곳을 걸으며 역사 속 인물과 사건,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전라감영에서는 전라감영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전통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전라감영의 역사적 인물과 행정을 정리하는 '전라도 관찰사의 전주부윤·관관' 도서 편찬 사업도 추진해 역사문화 연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전라관찰사의 탄생'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연극 관람과 함께 전라감영 곳곳을 탐방하며

조선시대 인물과 이야기를 만나고, 활쏘기와 주판놀이, 종이접기,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전라감영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전라감영의 날'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이달에는 사생대회와 백일장이 개최되며, 오는 10월에는 전주화약 체결 과정을 재현하는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와 조선시대 사승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오는 11월에는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전통 김장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는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여기에, 전라감영 선화당에서는 전라검무와 교방승무, 포구락, 화무 등 전라감영 교방청의 전통예술을 선보이는 '전라감영 교방무' 공연이 개최된다. 시는 전통무용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수준 높은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전라감영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정경선 연출가, 박동화연극상 대상

35년간 지역 연극 발전 헌신... 22일 전주체련공원에서 시상식 진행

전북 연극계 발전에 헌신해 온 정경선 연출가(사진)가 제29회 박동화연극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회장 이미진)가 주최하고 박동화연극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상철)가 주관하는 '2026년도 제29회 박동화연극상' 대상 수상자로 정경선 연출가(전주시립극단 사무국장·극단 차지동 연출)가 선정됐다.

박동화연극상은 전북 연극의 중흥기를 이끌며 평생 연극운동에 헌신한 고 박동화 선생의 예술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지역 연극 발전에 기여한 연극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전주 체련공원 내 박동화 선생 동상 앞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정경선 연출가는 1990년 연극계에 입문한 이후 배우를 비롯해 기획, 극작, 연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1년과 2014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 공연에 참여하며 전북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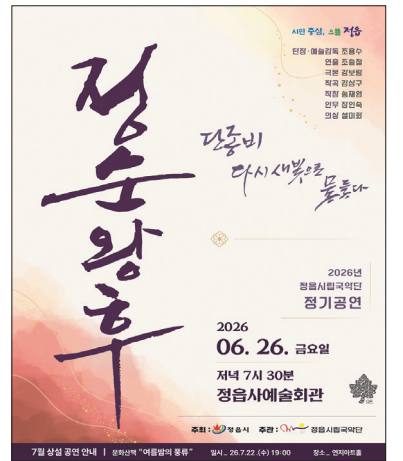
또한 35년 넘게 지역 연극예술 발전에 헌신하며 다수의 연극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연극계 본선에 출전한 전북 대표 작품의 극작과 연출을 맡아 작품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호남 유일 왕비 삶 조명... 창무극 '정순왕후' 제공연

정읍시가 호남에 배출한 유일한 왕비인 정순왕후의 삶을 다룬 창무극 '정순왕후' 제공연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정읍시립국악단의 정기공연으로 마련됐다. 작품은 정읍 칠보면에서 태어난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의 생애를 주제로 다룬다. 왕위를 빼앗긴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겨내고 평생 절개와 충절을 지킨 그의 애절하고 고귀한 삶을 예술로 풀어냈다.

특히 이 창무극은 정읍의 전통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창작한 작품이다. 정읍시립국악단이 선보이는 수준 높은 소리와 연주, 안무에 한층 발전한 영상과 조명을 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무대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중국 전통 도예기법·조형미 선보여

강소성 이십시 대표 공예품 자사호 제작 도예가들, 부안청자박물관서 제작 시연

부안군은 중국 강소성 이십시의 대표적 공예품인 자사호(紫砂壺) 제작 도예가들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안청자박물관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안청자박물관과 이십시 도예계 간의 도지문화 교류를 통해 고려삼강청자와 자사호의 예술적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중국 1급 공예미술사 저우이(Zhou Yi)를 비롯해 위진(WEI ZHEN), 장웨이(Zhang

Xueying), 샤메리(Merry Xia), 왕마오(Wang Mao) 등 총 5명의 이십시 도예가들로 구성됐다.

중국차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십시의 자사주전자 제작 시연은 현지에서 직접 가져온 자사토를 이용해 17일 오후 1시부터 부안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중국 전통 도예기법과 조형미를 선보였다.

또 이십시 상감 자사호 도자기와 부안 고려삼강청자 간 교류전 개최 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도지문화 공동 전시 및 상호 방문 전시 추



진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부안청자박물관의 부안청자지원센터 준공에 따라 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이십시 도예가를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해 국제 도예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창작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푸드트럭 운영자 7월 10일까지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최철)가 소리축제 기간(8.12~16)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관람객들의 입맛을 책임질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푸드트럭 영업 및 식재료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영업신고증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event2@soarifestival.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보건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음식

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체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소리축제는 참가 업체의 운영 편의를 위해 전기 시설과 운영 공간을 지원한다. 메뉴 경쟁력과 가격의 적정성, 친환경 운영 협조도, 안전·위생 관리, 관련 운영 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8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